



경기도 농어민대상 10개부분 수상자에 중소가축부분 이만형 대표 수상영예



◀ 이만형 대표

경기도는 경기농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농업인에게 주어지는 제14회 농어민대상 수상자 10명에 중소가축부분 길샘축산 이만형 대표가 선정되어 지난 25일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표창을 받았다. 농어민대상은 경기도가 지난 1994년부터 고품질 쌀 생산, 과수, 화훼, 수산, 임업 등 각 분야 최고 권위자에게 주어져 왔으며 열심히 일하는 농어업인이라면 한 번쯤은 꿈꾸어 온 상이다.

이만형 대표는 현재 신란계 6만수와 육성계 1만5천수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몇 년 전부터 항생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제품

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이만형 대표는 광주지역에 2세축산인들의 모임인 '다한영농조합법인' 조합장으로 활동하여 양계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축산과학원

중국 농업과학원 사료연구소와 손잡다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원장 이상진)은 9월 27일 축산과학원 강당에서 중국 농업과학원 사료연구소와 새로운 축산 사료 개발 및 기술공유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주요협약내용은 ▲축산과학원과 중국 사료연구소간 축산 사료 및 사료첨가제 개발을 위한 양국 연구소간 기술공유 방안 ▲국제공동연구 협약서 체결 및 새로운 연구사업 발굴을 위한 교류협력 ▲중국과 한국 축산농가의 기술지원 및 교류방향 협의 ▲축산과학원 개발 제품의 중국 현지적용 및 평가 등이다.

이 날 행사에는 중국 사료연구소 소장인 Dr. Cai huiyi와 중국 사료연구소 국외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Ms Zhao lihua, 중국 사료연구소 주임교수인 Dr. Diao qiyu 등과 이상진 축산과학원장을 비롯한 이길홍 축산생명환경부장, 안병석 축산자원개발부장, 양보석 기획조정과장, 김현섭 낙농과장 등이 참석하였다.

맞춤형 가축사양표준 만든다

우리나라 가축과 사료자원, 사육환경에 적합한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사양관리를 위하여 가축사양표준을 만들어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축산과학원은 이를 위해 10월 5일 축산과학원 강당에서 학계와 연구계, 업계, 단체, 양축가 등 축산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에 작성하는 한국가축사양표준은 2002년 1차 발간 시 미흡한 부분을 검토 보완하는 것으로 한우, 젖소, 돼지, 가금, 사료성분표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지난 5년 동안 축산과학원에서 연구한 결과와 학계, 업계, 단체의 자료 및 관련 문헌을 수집 검토하여 축산인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작성할 계획이다.

한국가축사양표준은 우리나라의 가축과 사료자원, 사육환경에 적합한 과학적인 사양표준을 제시하고, 사료자원에 대한 영양소 함량과 축종별 사료가치 평가 자료를 정리하여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 양축 현장에서 사육중인 가축에 대한 사료급여량을 쉽고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하고 축종별로 주요 사양기술도 함께 수록하여 양축농가의 과학적인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축산과학원은 공청회에서 있었던 의견들을 수렴 보완하여 한국가축사양표준을 확정된 후 분야별 가축 사양표준책자를 발간하고 사료급여량 계산 프로그램을 CD로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친환경 폐사가축 처리기 개발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은 축산농가에서 폐사



한 가축처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진공상태를 이용한 '직접 가열식 폐사가축처리기'를 개발, 10월 11일 천안 마정공단에 소재한 (주)태성기계(대표이사 김종화)에 기술 이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직접 가열식 폐사가축처리기'는 각종 질병, 전염병 등에 감염돼 폐사한 가축을 고압스팀으로 가열하여 완전 살균 처리하는 동시에 진공 상태로 폐사한 가축의 수분을 완전히 제거해 폐사체 처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개발한 직접 가열식 폐사가축처리기는 장비 내 설치된 가열수단을 이용해 직접 동물사체처리드럼을 가열, 사체처리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기존 장비에 사용되던 보일러 설치가 따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기계를 수동이 아닌 자동으로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쉬울 뿐 아니라 수질오염과 냄새로 인한 공기오염을 방지해 환경오염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축산물HACCP기준원 창립 1주년 기념행사 거행

축산물HACCP기준원(원장 곽형근)은 지난 9월 27일 기준원 대강당에서 창립 1주년 기념행



사를 가졌다. 이날 농림부 축산국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위생과장, 축산물 안전과장 등이 참석하여 축산물HACCP기준원의 1주년 자리를 빛내주었다. 곽형근 원장은 기준원 설립 준비 단계의 T/F팀에 참가하여 창립에 공헌이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변성근 사무관, 농협중앙회 전광훈 차장, 사료협회 김동환 과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짧은 기간이지만 기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관계자와 관련 기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가축사육단계(소농장) HACCP 지정 신청 접수 시작

돼지 농장 HACCP 진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농장 HACCP에 대한 신청접수가 지난 8일부터 시작되었는데 신청 첫날부터 대단히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간 한우브랜드 참여농가를 중심으로 HACCP 준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지난 9월 6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소 농장 잠정평가 기준안을 마련한 이후 평가 기준에 따라 1개월간 자체 운영실적을 첨부하여 축산물 HACCP기준원에 지정신청이 가능한 첫날인 10월 8일 당일에 2개 브랜드 6개 농장(천년한우

4, 대관령한우 2)과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서산)에서 지정신청을 하였다.

젖소농장 역시 활발하게 준비중에 있어 조만간 많은 지정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닭농장까지 포함하여 전체 농장 HACCP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2007년도 제2차 양계분야 협의회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지난 10월 8일 협회·업계·학계·관계 등 28명의 가금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제2차 양계분야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양계분야 협의회는 양계질병 위생관리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수요자 측면에서 양계산업 현장애로 기술개발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2005년 8월에 구성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분야별 협의체이다.

이날 개최된 협의회에서는 가금질병의 연구개발 업무의 발전방향, 현장애로기술과제 발굴, 가금질병연구회 학술대회 개최사항 등이 주요 협의 안건으로 논의되었다. 이날 협의회 위원들은 비전염성 질병에 대한 연구업무 강화, 가금질병 종합실태조사를 통한 현장연구 강화, 가금질병연구회를 통한 현장 수의사와의 연계활동 강화 등 현장애로사항에 대한 대응연구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현장애로형 기술과제와 관련, 감보로병 등 면역억제성 질병 연구, 야외에서 빈발하고 있는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레오바이러스 감염증, 닭뉴모바이러스감염증, 닭전염성빈혈 등에

대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속한 연구를 제안하였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천지원·국립식물검역소 중부지소 간 검역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천지원(지원장 김도욱)과 국립식물검역소 중부지소(지소장 김후동)는 10월 16일(화) 검역원 인천지원 검역2과에서 검역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검역기관간의 이해증진 및 상호협력을 통한 검역업무를 발전시키고자 양해각서(MOU)을 체결하였다.

양해각서는 양 검역기관간의 협력활동을 통하여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가축전염병과 과실파리류·코드린나방 등 외래병해충의 발생동향·검역조치 등에 대한 정보공유, 검역업무의 홍보 협력 및 긴급한 검역업무 수행시 시설·장비 사용 등에 대한 상호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양 기관장은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의 검역업무에 대한 이해증진과 협력체제로 긴급한 검역업무 수행시 타 업무에 우선한 상호협력 시스템 구축 등으로 검역기관의 지속적인 발전과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추석 대비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 결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축산물 성수기인 추석을 맞이하여 축산물 생산·유통업체에 대한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단체의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75명) 및 시·도 축산물위생감시원(47명)과 합동으로(총인원 304명) 2007년 '09월 11일부터 '09월 21일까지(10일간)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및 축산물판매업소 325개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총 62개소, 68건이 적발되었으며 주요 위반 사항은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미작성 16건, 위생교육 미실시 12건, 식육의 표시사항 위반 6건,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5건, 건강진단 미실시 5건, 거래내역서 미작성 4건, 허위표시·과대광고 2건, 기타 18건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남 15개소, 경기 12개소, 인천 6개소, 강원 5개소, 대구 4개소, 충북, 경남, 부산 및 광주 각3개소, 충남, 전북 및 경북 각 2개소, 서울 및 제주 각1개소이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 등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 최고 영업정지 1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축산물등급판정소

1사 1촌 사회공헌활동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재용)는 지난 10월 12~13일(2일간) 자매 결연을 맺은 무릉리(이장 서상진)로 농번기 일손 돕기를 다녀왔다. 등급판정소는 지난 2005년 6월 15일 전북 진안군 주



천면 무릉리 마을과 자매 결연을 맺은 후 농번기 일손 돕기 및 농산물 구매, 마을 홈페이지 도메인 관리비용 지원 등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 오고 있다. 이번 농번기 일손 돕기에는 본소 및 전북지역본부 직원 26명이 3개조로 나뉘어 들깨베기와 울무베기 및 타작을 도왔다.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앞으로도 농촌 일손 돕기 행사 등 도·농간의 교류를 통한 농촌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양계농협 경북 영천공장 기공식



한국양계농협(조합장 오정길)은 지난 10월 1일 경상북도 영천시 매산동에 들어서게 될 영천한방계란유통센터 기공식을 가졌다. 지난해 10월 영천시로부터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영천한방계란 브랜드 명품화'를 사업으로 지정되어 국비, 지방비, 도비 등 15억원의 자금을 지원받

고, 조합의 사업예산을 반영해 총 45억원의 자금이 확보되었다.

영천한방계란유통센터는 HACCP 관리기준에 의거해 최첨단 계란선별·포장·위생시설 등 내부시설을 견비해 원란창고 678㎡(205평), 청정구역선별장 588㎡(178평), 완제품창고 662㎡(200평), 사무실, 회의실, 등급판정실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언제나 방문하여 견학할 수 있는 코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2007년 12월 31일 준공 될 예정이다. 기능성 한방계란 생산기술을 농협중앙회 축산기술연구소와 농협사료 및 양계조합이 공동으로 개발 중에 있으며, 향후 전국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한국가금학회 임원회의 및 이사회



지난 12일 본회 회의실에서는 한국가금학회(회장 김기석) 임원회의 및 제 2차 이사회의가 열렸다. '제 23차 한국가금학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 개최건과 관련하여 오는 11월 23일(금) 경북대학교에서 개최기로 결의하였다. 이날 서울대학교 이무하 교수를 초빙하여 계란관련 해외정보에 대한 초청강의 시간을 갖고, 최근 논문을 중심으로 신진학자들의 학술발표 및 포스터 발표 등을 추진키로 하고 논문접수에 들어

갔다. 한국가금학회지 학술진흥회 등재지 추진에 대해서는 류경선 편집위원장이 금년 최종 확정을 앞두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가금학회의 사단법인 추진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취합하여 다음 이사회에 추진여부를 거론키로 하였다. 한편, 2008년도 차기 수석부회장으로 사료기술연구소 박장희 소장이 선출되면서 앞으로 한국가금학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해 탄탄한 뒷받침 역할을 제공할 것이라 다짐했다.

덴마크의 돈육, 가금식품 안전 세미나 개최 덴마크 요리 시식회 행사도 곁들여져



덴마크 육류협회, 덴마크농업협동조합, 주한덴마크대사관은 공동으로 지난 10월 9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국내 축산식품관련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덴마크의 돈육, 가금식품안전에 대한 세미나 및 덴마크 식품에 대한 시식회 행사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육류수출입협회 헨릭 분켄버그 상담소장이 안전한 덴마크 가금육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덴마크는 동물복지 차원과 국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가금류에 항생제를 금지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안전성을 갖춘 농장만이 사육이 가능함을 강

조하였다. 또한 살모넬라 양성율도 2% 이내를 기록하고 있으며, 캄필로박터균에 대해서도 음성을 보인 농장에게는 보너스를 지급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 요리 시식회에서는 닭고기로 만든 각종 제품들이 선보이며 한EU FTA 타결에 대비한 수출전략을 적극 펼쳤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AI 소독요령 및 차단방역 특별교육 실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최상호)는 지난 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시특별방역 순회교육을 실시하였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시특별방역 순회교육은 경기 2회, 충남 2회, 충북 1회, 전남 3회, 전북 5회, 경남 1회, 경북 3회, 강원 2회 등 총 19회에 걸쳐 각도 축산과에서 '07·08년도 시특별방역 대책 추진'에 대한 특강과 함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요령 및 차단방역'에 대해, 방역본부가 '가금질병의 이해와 방역실시 요령'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역할'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정부에서는 매년 11월부터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국내 재유입 및 발생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으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는 '07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가금농가에 대한 홍보와 함께 농가의 자율방역의식을 고취시키고자 가금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요령 및 차단방역 등을 내용으로 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